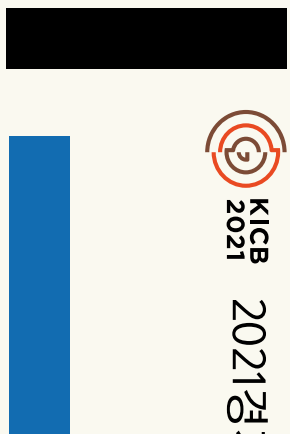




KICB
2021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특별전



회복 - 공간을 그리다



REI

COO

L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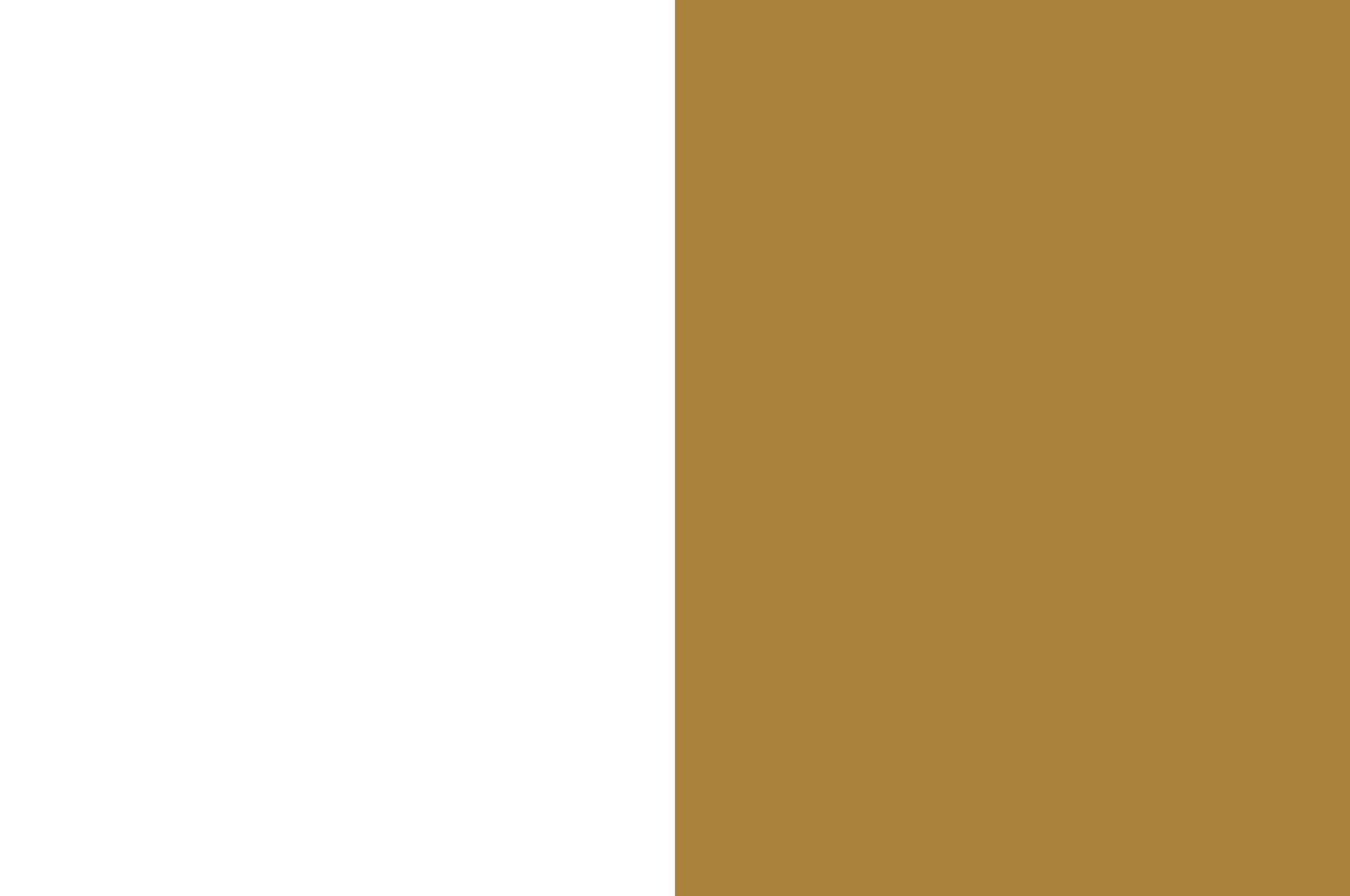
RY

회복 -
공간을
그리다



Recovery - Draw a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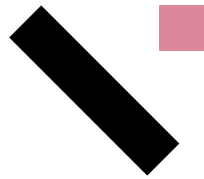




회복 - 공간을 그리다

RE
CO
VE
RY

Recovery - Draw a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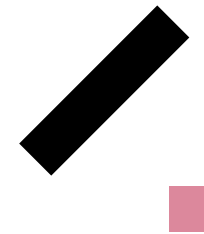


일러두기.

1. 본 도록은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에서 개최된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특별전 <회복-공간을 그리다>(2021.10.1.-2022.1.28.)을 기념한 전시도록이다.
2. 작품수록 순서는 전시구성순이며, 작가 국문이름의 성을 기준으로 하되 작품의 분위기와 도록 편집상 디자인을 고려하여 안배하였다.
3. 작품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cm)순이며, 지름은∅로 표기하였다. 작품크기가 다양한 경우에는 작품을 진열하였을 때의 전체 놓여지는 면적을 표기하였다.
4. 촬영은 전시 연출을 한 후에 일괄 촬영하였으며, 참여작가 작품사진 중 한국도자재단의 경기도자온라인페어에서 촬영한 사진이 편집디자인을 고려하여 함께 수록되었다.
5. 촬영 후 일부 작품이 연출수정으로 인해 이동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6. 도록에 수록되는 언어는 국문을 기본으로 하며, 전시기획, 전시구성의 소개에 한하여 국문과 영문을 병기하였다.

Note.

1. This exhibition catalogue is published on the occasion of Yeosu Special Exhibition Recovery_Draw a Space of KICB2021 held from October 1, 2021 to January 28, 2022 at Gyeonggi Museum of Ceramic Design.
2. The works are shown in the order of composition of the exhibition. Works are arranged based on family name in Korean, though the ambience of works and editorial design are also considered.
3. The size of a work is indicated in the order of width, length, and height (cm), and the diameter is marked as ∅. If a work consists of multiple pieces, the total floor space where the work is to be displayed is indicated.
4. Photographs were taken after all the works had been put on display for the exhibition. In some cases, the photos of works by participating artists, which had been photographed during the Gyeonggi Ceramics Online Fair, are included in this catalogue in consideration of editorial design.
5. Several works were rearranged due to revision in display.
6. This catalogue is printed in Korean, except for the essay on the exhibition and the introduction of exhibition composition, which are given in both Korean and English.



목차. Contents

인사말. Greeting	10
기획의 글. Curatorial Essay	12
Section 1. 오롯한 + 그릇하나 Complete+Single Vessel	16
Section 2. 사적인 + 공간을 거닐다 Private+Promenade	26
Section 3. 친밀한 + 문화를 마시다 Familiar+Drinking Culture	42
Section 4. 친밀한 + 시간을 마시다 Familiar+Drinking Time	60
Section 5. 공유의 + 여행을 그리다 Sharing+Dreaming Travelling	72
Section 6. 10cm + 공간을 그리다 10cm+Rendering Space	82
전시협력. Exhibition Cooperation	96
작가약력. Artist's Biography	98

인사말.

올해로 열 한 번째를 맞이하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개최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주제는 '다시 쓰다 Re:Start'입니다.

이번 주제는 새로운 시도와 제작 과정을 표현하고 작품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2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비엔날레는 과거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자의 역할과 의미를 짚어보고, 예술적 기여를 통한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비엔날레 전시는 이천, 여주, 광주 3개 지역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시도 개최하여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현대도예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저희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도자예술의 영역을 확장시켜, 도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이어져온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앞으로도 도자예술문화를 선도하며 도자문화의 생활화, 세계화, 혁신화를 이룰 것입니다. 힘든 시기 많은 분들에게 도자문화예술이 위로가 되길 바라며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해주신 각국의 모든 작가분들과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 10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연**

Greeting.

It is a great pleasure to host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which marks its eleventh anniversary this year.

The theme of the 2021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s Re: Start. It presents new experimentation and production process, and shows the will to break the boundaries of genre. In commemo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Biennale, we aims to examine the role and meaning of ceramics after the post-corona period, and to deliver a message of healing and hope through artists' contributions.

This year, the exhibitions, related to the Biennale, will be held in Icheon, Yeosu, and Gwangju as well as Online to demonstrate the contemporary ceramics to people around the world. We make the Covid-19 pandemic as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field of ceramic art and suggest the way that ceramics should take by providing Online Platform.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which had been held since 2001, will continue to lead ceramic culture and achieve ceramics in everyday life, globalizing, and innovative ceramic art. I hope that ceramic art could be a hope for everyone during this difficult time. We ask for your continued interest in the Korean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Lastly,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st gratitude to all the participating artists and all the person in charge who tried hard to open the international event.

October. 2021

President of Korea Ceramic Foundation **Yun Choi**

기획의 글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는 뉴 노멀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일상과 생활방식, 관계, 소통, 문화, 경제 등의 '회복'을 희망하며 도자공예를 통한 개인 삶의 변화와 문화적 행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리적 거리와 공간, 심리적 공간에 따른 오늘의 삶은 개인의 식생활문화 및 소비 전반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와 타인의 거리, 내가 있는 공간과 각자가 있는 공간을 점점 의식하게 되면서 어느 때 보다도 '공간space' 과 '거리distance' 는 강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다각면의 변화로부터 체감하고 있는 공간적 삶 속에서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고 있는 우리의 식생활 문화에 대해 본 전시는 관람객들이 매일 더 큰 행복에 다가가고 도자공예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 특별전시는 특정 공간, 혹은 거리두기 속에서 펼쳐지는 테이블 웨어 식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6개의 키워드로 전시공간에 따라 섹션을 나눴습니다. 경기도자온라인페어에 참여한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 도자공예품을 사용하는 '공예-실천-행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길 기대하며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본 전시에서는 도자공예를 단순히 예술작품으로 감상하는 전시를 넘어서 관람객의 일상생활 곁에서 도자공예가 살아 숨 쉬길 바라며, 2020-2021년 경기도자온라인페어에 참가한 작가 중 기획 선정하여 전시와 페어가 만나는 접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관람객은 일상생활과 흡사한 환경에서 작품을 보고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뿐 아니라 작가를 대표하는 작품세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곳에서 작품들을 좀 더 가까이 보고, 만지고, 쓸 수 있도록 공예가치의 실천이 이뤄지는 회복의 공간을 그렸습니다.

전시실을 따라가면 참여 작가의 세계관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오롯한+그릇하나'를 시작으로 3-4인 소수를 위한 테이블 웨어 풍경과 차와 홈 카페문화를 반영한 식음료도구, 다양한 우리의 그릇과 수저받침 등이 펼쳐집니다. 신진작가의 디자인적인 작품뿐 아니라 오랜 시간 숙련된 손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오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친밀한+문화를 마시다'와 '공유의+여행을 그리다' 섹션은 우리나라 차 문화에 대해 연구하고 알리는데 활동하는 옥인다실과 우리 공예문화를 생활 속에 가꿔 나가는 공예 장생호와의 협업기획으로 특색 있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나를 위한 차 한잔의 시간과 자연으로부터의 치유와 자유로운 여행을 그리며 도자기의 빛과 형태의 아름다움을 선보입니다.

작가의 작품이자 상품에 대한 조명 뿐 아니라 현대 우리 생활문화 속에 자리한 도자공예를 살펴봄에 코로나 이후 개인의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는 공예생활의 실천, '다시_쓰_다'가 여러분 삶 속에서 피어나길 바랍니다.

경기생활도자미술관 큐레이터 **김지수**

Curatorial Essay

This exhibition was arranged to bring us all positive change in our lives and to share culture. It features ceramic crafts and aspires to 'recover' some modicum of spiritual health in everyday life, relationships, communication, culture, and work...something which we truly need in the New Normal Era.

In light of the changes that are occurring in every respect in space, this exhibition about food culture invites the audience to reach for greater happiness every day and to enjoy ceramic crafts. This special exhibition of KICB2021 in Yeosu is divided into six parts that tell stories about tableware and food culture in specific spaces or under social distancing rules. The exhibition shows works by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e Gyeonggi Ceramics Online Fair, through which the audience will find time to share the happiness of using crafts in everyday living.

We are challenged by changes, big and small, in diet and consumption, due to physical distance and space, as well as psychological space. We are now conscious of 'space' and 'distance' more than ever before as we become increasingly aware of the distance between ourselves and others, and the space where we each belong and the space where others belong, and we interpret the distance and space from new perspective.

In hopes that this exhibition will help the audience see ceramic crafts as something alive in their everyday living, rather than something merely to be admired as works of art, we have arranged this exhibition to bring an art exhibition and a crafts fair together. We selected artists from among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Gyeonggi Ceramics Online Fair 2020-2021 and made this exhibition a place where the values of crafts are upheld by allowing the visitors to see, touch, and use works of art in an environment that is much like their own in everyday living. The visitor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take a closer look not only at products sold online but at artworks representing the artists and to buy them at Smart Store.

As visitors make their way through the galleries, they can see a wide variety of tableware and tea utensils, spoon rests, and cutlery designed by young artists, as well as artworks by artists who have worked with the greatest skill for decades. Two sections - Familiar+Drinking Culture and 'Sharing+Dreaming Travelling' - present characteristic spaces that the Yeosu Museum team created in collaboration with Ogindasil Tea House, which conducts research into and promotes Korean tea culture, and Crafts Jangsaengho, a crafts company that practices crafts culture in everyday living.

This exhibition sheds light on artworks and commodities and will allow you to take a closer look at ceramic crafts, which have become a part of everyday life. We hope that the KICB 2021 theme of 'Re:Start' will blossom in your everyday living as you live with crafts after the COVID-19 pandemic.

Gyeonggi Museum of Ceramic Design Curator **Jisu KIM**



Section 1 · 오롯한+그릇하나

그릇 하나에 담긴 작가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축적된 시간 속에 드러난 특색이 담긴 참여작가의 대표 작품은 일상적인 오브제로써 쓰임에 충실한 기물입니다.

숙련된 손에서 나온 재료의 표현, 형태, 쓰임새를 살펴보며 생활 속에서 한 점, 한 점 눈에 담아 깊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큐알 코드를 통해 경기도자온라인페어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연동하여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온라인에서 보고 구입도 가능하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참여작가 김경수, 김종훈, 김소민, 신경욱, 강현경, 박은미, 백소율, 손경환, 유천욱, 오성기, 인현식, 이용기, 이예슬, 이창화, 현상화, 이영호, 박병욱, 양수열, 나용환, 최민록, 정재홍, 정산, 황동환, 조신현, 하민지

Section 1 · Complete+Single Vessel

This is a space where you can glimpse into the art of an artist as it is embodied in a single vessel. A representative work that increasingly shows its characteristics over time is an objet and a vessel to be used in everyday living. Take a closer look at how materials are expressed, and the shape and purpose of the vessel created by a skilled artisan, and keep the images of each piece on display in your mind so that you can practice using them in daily life.

Participating Artists Kim Kyungsu, Baek Soyul, Shin Kyunguk, Kim Somin, Yoo Cheonuk, Kang Hyunkyung, Oh Sunggi, In Hyeonsik, Lee Yonggi, Son Gyeonghwan, Jung Jaehong, Lee Changhwa, Park Eunmi, Ha Minji, Lee Yaesol, Hyun Sanghwa, Lee Youngho, Park Byeonguk, Yang Suyeol, Na Yonghwan, Kim Jonghun, Choi Minrok, Jung San, Hwang Donghwan, Cho Sinhyun







김경수 Kim Kyungsu 백자운문합 Lidded Box White porcelain with clouds design, 19x19x13



김종훈 Kim Jonghun 대정호찾사발 Tea Bowl, 16.5x9.5



김소민·신경욱 Kim Somin·Shin Kyunguk 단아꽃잔 2인세트 Elegant, Flower cup set for two person, 주전자 7.6 x 8.4, 잔 7.5 x 4.7



오성기 Oh Sunggi 자작나무 이야기_주기세트 Birch Tree Story_Drinking vessel, 주병 11x 8 x11, 잔 6x6x4.7, 긴사각접시 2.5x13x5



박은미 Park Eunmi 화병과 볼 Vase& Bowl, 28.5x8, 25.5x10



정산 Jung San 트라이반(盤)_소반 Triban_soban, 20x20x9.5



인현식 In Hyeonsik 은손잡이 탕관 Silver Handle Large Teapot, 다관 11x13x11.5



조신현 Cho Sinhyun 선의흐름 Linear Flow, 17x17x42

Section 2 . 사적인 + 공간을 거닐다

당신과 나의 최소한의 공간(거리)이 필수적인 시대에 독립된 공간 속에 펼쳐지는 소수를 위한 상차림을 여섯 개의 공간을 거닐며 만날 수 있습니다.
현대 식생활 속에 다양한 음식과 조화를 이루는 테이블 웨어이자 취향을 즐길 수 있는 오브제로써 생활의 풍요로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참여작가 김경수, 강현경·유천옥, 김소민·신경옥, 백소율, 이예솔, 하민지



Section 2 . Private + Promenade

We are living in an era where we must all maintain minimum distances between themselves. This part shows table settings for a few diners that you will encounter as you promenade through six separate spaces. The vessels presented here are imbued with abundance of life as tableware in harmony with the food and as objects to be admired as art.

Participating Artists Kim Kyungsu, Yoo Cheonuk, Kang Hyunkyung, Baek Soyul, Kim Somin·Shin Kyunguk, Ha Minji, Lee Yaesol



Part 2. 사적인 + 공간을 거닐다

달인과 사의 최초의 공간(거실)이 절제된 차에 의한 공간 속에 펼쳐진 조수를 위한 장식임을 매우 거의 공간을 거닐며 만날 수 있다. 현대 직업을 위해 다양한 실용적 조수를 이루는 차이를 제시하기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생활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We are living in an era where we must not be overwhelmed by modern conveniences. This part shows table settings for a tea ceremony that you will encounter for an year periodically through an elegant space. The room presented here is intended with abundance of life as a response to harmony with the land and all objects to be added in it.

김경수 Kim Kyungsu

조선백자의 현대화를 중점으로 쓰임과 단순함을 지향한다. 부드러운 선과 기물 내부의 공간 그리고 본질적 형태와 잘 호응하는 유약과 재료에 대한 생각이 기물에 담겨있다. 물레성형 한 자연스러운 선으로 단순한 형태를 만들고, 높은 굽에는 문양을 투각하여 작은 시선을 이끈다. 또한 백자 기물에 은은한 은빛을 더하여 특별함과 세련됨을 보여준다.

Kim Kyungsu seeks to update Joseon white porcelain while searching for the greatest functionality and simplicity. The gently flowing lines, interior spaces of vessels, glazes, and clay that would well respond to intrinsic form all reflect the potter's careful consideration. He makes a simple form with natural lines on the wheel and decorates a high leg with small open-work design. His adding a subdued silver tint to white porcelain makes his vessels all the more special and refined.



백자반상기세트 White porcelain Table Setting



백자은채16각 차세트 Silver and White porcelain Tea Sets
주전자11x8x12.5, 잔 5X5, 원형접시 27x27x3



백자반상기_공기, 국공기, 찬기 Silver and White porcelain Dinnerware
공기 10.5x5.7, 국공기 12.8x5.7

강현경 · 유천욱 Kang Hyunkyung · Yoo Cheonuk

공동 작업하여 작품을 만드는 두 작가는 백자토를 기본으로 하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과 옛 민화에서 영감을 받아 기물에 청화상감기법을 이용해 여백의미를 살려 문양을 새겨 넣는다.



Kang Hyunkyung and Yoo Cheonuk work as a team. Inspired from plants commonly seen around us and ancient folk paintings, Kang and Yoo produce white porcelain decorated with inlaid design in cobalt blue as little as possible, applying the concept of beauty of "void," the empty space.



따뜻한 침포 하나 Warming up myself



청화상감컵시리즈 Blue and White porcelain Inlaid Cup Series, 8X15X11

김소민 · 신경욱 Kim Somin · Shin Kyunguk

조금 특별하게(a bit more special)라는 슬로건으로 그릇의 작은 변화를 통해 식탁 위에 소소한 행복함을 전달하는 작품을 지향한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백자작업과 사엽화(四葉花)형태의 화형기를 선보인다.



Always seeking something 'a bit more special,' Kim Somin and Shin Kyunguk aspire to produce works that deliver simple happiness on the table by making seemingly small changes to vessels. Presented at this exhibition are white porcelain based on tradition and four-petal flower-shaped bowls.



단아클래식시리즈 Graceful Classic Series



단아보화주전자와 꽃잔 Graceful a treasure Teaware 주전자16 x 10.5 x 6.5, 꽃잔 7.5 x 4.7



단아클래식볼 Graceful Classic Bowl, 15.4x7, 13x7, 9.8 x 4.5

백소울 Baek Soyul

물레 위에서 성형해 만든 자연스러운 연리문은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으며, 기물에 생동감과 회화적 표현을 보여준다. 형태와 어울리는 반무광유약을 사용해 표면의 부드러움과 차분함을 안겨준다.



No two natural looking marble designs created on the wheel are alike, which gives vessels a certain vividness and painterly expression. By applying semi-matt glaze that is appropriate for the shape, the surfaces of vessels impart a tender and quiet ambience.



마블링핑크시리즈 Marbling Pink Series
샐러드볼 26x6, 시럽잔 6x8.5



마블링브라운시리즈 Marbling Brown Series Table Setting



마블링브라운시리즈 Marbling Brown Series 접시 27x1.5, 머그컵 9.5x8

이예솔 Lee Yaesol

아르누보 양식을 응용하여 식물의 구불구불한 선과 꽃무늬의 반복 패턴을 문양으로 슬립캐스팅하여 백금이나 금, 은을 작품에 입혀 3번 소성한다. 유리와의 결합을 통해 투명성과 불투명성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Lee Yaesol applies art nouveau style to design curved lines of plants and repetitive floral patterns and produce them by slip casting technique. She coats surfaces with platinum, gold, and silver and fires the pieces three times. The combination of ceramics and glass allows viewers to feel the harmony of transparency and non-transparency.



앤티크실버차세트 Antique Silver Tea Set



앤티크실버샐러드볼 Antique Silver Salad Bowl, 24x24x10



앤티크실버컵 Antique silver cup 8.5x8.5x13

하민지 Ha Minji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환경과 단순하고 고요한 일상에서 영감을 얻어 식물, 새, 손 등의 형상을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노래를 부르고 둥지를 짓고 알을 부화시키는 새를 형상화한 디자인과 꽃다발을 움켜 쥔 화병은 슬립캐스팅기법으로 제작하였다.

Inspired by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changes through the seasons, and by simple, quiet everyday living, Ha Minji explores the shapes of plants, birds, and hands. She utilized slip casting to produce the shapes of a singing, nest-building or egg-hatching bird and a vase with flower.



박새화병 Bird vase, 16x6x10.5



하민지오브제 HAMINJI Object Display



물까치물뿌리개 Bird Watering Jug, 17x7x19

Section 3 친밀한 + 문화를 마시다

우리 차 문화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는 옥인다실(대표 이해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선시대 우리의“책가도”에서 영감을 받아 7명의 도예가가 만든 차 도구를 전시합니다. ‘나를 위한 한 잔의 차’를 준비하는 몸과 마음에 위로가 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며, 차의 시간에 필요한 다양한 차 도구를 살펴보고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협업기획 이해진_옥인다실 대표

참여작가 김종훈, 나용환, 박병욱·양수열, 이영호, 인현식, 이용기_목가구, 최민록

Section 3 Familiar + Drinking Culture

In collaboration with Ogindasil Tea House (CEO: Lee Hye-jin), which has led research on Korean tea culture, this part presents tea utensils created by seven ceramic artists who got their inspiration from ‘Chaekgado’ (painting of books and scholar’s paraphernalia) dating to the Joseon dynasty. We hope that visitors will have time to prepare ‘a cup of tea for me’ to comfort their bodies and minds. This space will help you look at diverse tea utensils needed for teatime and rediscover the beauty of tea culture.

Collaboration Lee Hye-jin_Ogindasil Tea House

Participating Artists Lee youngho, In Hyeonsik, Lee Yonggi, Park Byeonguk, Yang Suyeol, Na Yonghwan, Kim Jonghun, Choi Minrok



김종훈 Kim Jonghun

조선시대의 정호다완을 재해석한 찻 사발과 차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차 도구를 만든다. 재료, 기능, 표현적인 면에서 오랜 실험을 통한 작가만의 쓰임과 기능을 고려한 섬세함이 돋보인다. 과거의 복제가 아닌 오늘날 차를 즐겨 마시는 다인들의 차 생활과 그 마음을 담아내고자 한 차 도구들이며, 차심이 깃들면 비로소 완성되는 작품을 만난다.



Kim Jonghun makes tea bowls that reinterpret “Jeongho Dawan” tea bowls of the Joseon period and various tea sets. He explored the delicateness that considers the purpose and functionality of a tea set over many years of experimentation with materials, function, and expression. His tea sets are not copies of the past. Instead, he tries to reflect the ways in which tea is enjoyed and the psyche of tea lovers of modern society. His tea sets are completed only when the psyche of tea has become fully steeped.



1인 백자개완세트 White Porcelain Gaiwan Set for One Person



내열탕관 Heat-resistant Pipkin 15×18×27



분청덤벙개완과 정호개완 Buncheong Gaiwan & Jungho Gaiwan, 개완 10.5x6.5x10.5, 9x6.5x9, 잔 6.5x6.5

나용환 Na Yonghwan

백자태토에 옹기토를 발라 모란문양을 새기고 박지기법으로 표면을 장식한다. 손잡이는 모던하게 디자인하여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성의 아름다움을 차 도구에 담아내었다.



A white porcelain clay body was coated with onggi clay, and then a peony design was inlaid in reverse and the background was scraped off, revealing a raised pattern. Na Yonghwan embraces beauty that appeals to modern sensitivity in this tradition-inspired tea set by designing the handle in modern style.



분청모란문커피잔 Bunchenog Cup with Peony Design



분청모란문사각차통 Buncheong Square Tea Box with Peony Design



화금모란다기세트 Gold Painting Tea Set with Peony Design

박병욱 · 양수열 Park Byeonguk · Yang Suye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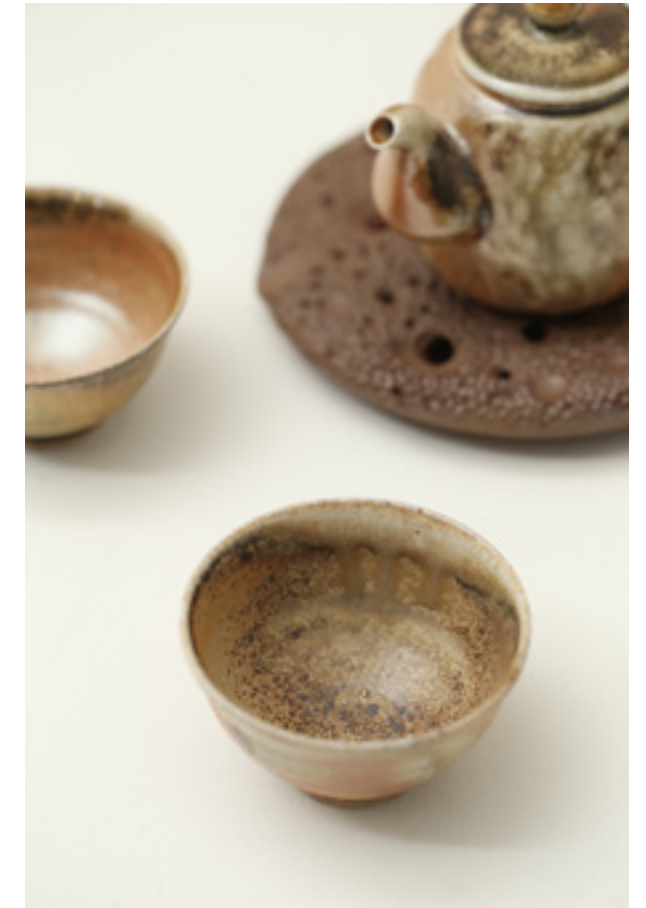
제주의 오름과 드넓게 이어져 있는 들판에서 영감을 얻고, 도자작업에 투영하여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기(器)로 표현한다. 자연에 맡길 수 있는 장작 가마를 고집하고 무유소성기법을 추구하고 있다.



Inspired by oreum (parasitic volcano) and vast fields on Jeju Island, Byeonguk and Yang Suyeol express beauty through vessels that can be fully felt only when they are being used. They stick to wood-firing and the no-glaze firing method, of which the results depend very much on atmospheric conditions



한송이 화병 Vase, 10x10x6.5



무유다관 Unglazed Teaware, 11.2x6.4x8.5



제주토무유다관 Jeju Clay Unglazed Teaware 다관 12x7.5x7.5 속우 6.5x12x6.3

이영호 Lee Youngho

전통백자의 기품과 멋을 현대화하여 백자의 단정함을 추구하면서도 청화로 단순한 문양을 그린, 용도와 쓰임을 생각한 차도구이다.



The elegance and beauty of traditional white porcelain are modernized in Lee Youngho's tea set that aspires to seek the simplicity of white porcelain. Decorated with simple designs painted in cobalt-blue, this tea set is meant to make tea drinking as comfortable and convenient as possible



철화주전자 White Porcelain Teapot with Underglazed Iron-Brown Painted, 11x14



싸리홍차세트 Bush Clover Black Tea Set, 주전자 21x13.5x13



청화홍차세트 Blue and White porcelain Black Tea Set, 주전자 19.8x13x13.5

인현식 In Hyeons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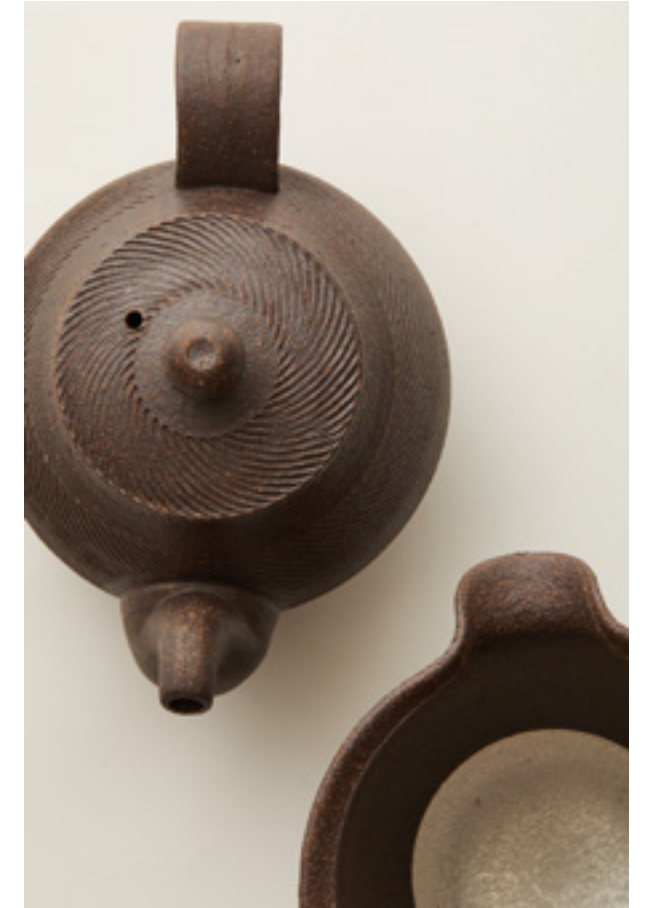
조선 백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단순히 옛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느낌과 감각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안정된 형태로 반영하고 있으며, 순수한 백색의 아름다움이 일상생활의 평화를 주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길 기원한다.



Rather than simply following traditional pottery-making, In Hyeonsik reinterprets Joseon white porcelain in a way that suits the modern lifestyle to give a new ambience and feelings to white porcelain. Traditional beauty is reflected in stable shapes. He wants the beauty of pure white color of his tea set to bring peace in everyday living and to enrich our lives.



동손잡이 줄무늬 다기세트 Copper Handle line Pattern Tea Set



흑토은칠다관 Black and Silver pottery Teapot, 7.5x11.5x8



은뚜껑 다기세트 Silver Lid Teaware, 다관 7.5x10.5x8, 잔 5.5x5.5x4.3

이용기 Lee Yonggi

자연이 만든 나무의 아름다움을 손으로 조각하고 다듬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작품이며, 자연석과 금속다리 등 타 재료와의 조화로운 표현이 돋보인다.

The beauty of wood created by nature is sculpted and trimmed by hand, giving new life to the object. The harmonious expression of ceramics mixed with other materials such as a stone from nature and metal legs makes this work particularly eye-catching.



작은 새2021 Small Bird2021, 새 12x5x10, 자연석



물고기 와인오프너 Fish wine opener, 19x9x13



능선디스플레이 Ridge Display, 상부장 150x40x120 하부장150x45x66

최민록 Choi Minrok

전통을 존중하며 현대에 어울리면서도 기능에 충실하고 쓰임이 좋은 차 도구이다.

흑도개완은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있는 검정색의 흙으로 제작하여 솟과 함께 소성해 전통 기와 느낌을 표현했고, 백자다관은 백색의 매트한 질감이 단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동시에 차 고유의 빛깔을 돋보이게 한다.

Choi Minrok makes tea sets suited for modernity while respecting tradition. Called Heukdo Gaewan, his tea bowls well serve their purpose and are truly functional. Made of black clay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iron and fired with charcoal, Heukdo Gaewan expresses the feeling of traditional roof tiles. In contrast, a white porcelain teapot imparts a graceful ambience for its white matt texture, which provides a perfect foil for the unique color of tea.



Pure White 다관 Pure White Teapot, 10.3x6.5x7.8



Pure White 개완 Pure White Gaiwan, 10.5x10.5x8



흑도(내화갈) 다관 Black pottery(saggar) Teapot, 10x6.2x7

Section 4 · 친밀한 + 시간을 마시다

집 '콕'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집을 구성하는 공간의 다양한 문화요소 중 휴식과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홈 카페가 일상을 아름답게 소비하려는 세대의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음료를 담는 기능과 취향이 반영된 특색 있는 머그컵, 커피잔, 와인 잔으로 일상의 소소한 문화를 가꾸어봅니다.

참여작가 이예솔, 조신현, 현상화, 황동환

Section 4 · Familiar + Drinking Time

Because social distancing has become the norm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and being 'stuck at home' has become the new everyday thing, the home café where we can enjoy hobbies and entertainment, one of the many cultural elements of the space of a house, is becoming a more common thing. It is of great interest to younger people, who generally want to spend everyday living in a beautiful way. Uniquely designed mugs, coffee cups, and wine glasses to be used as containers of beverages and food will help the visitors enjoy happiness in everyday living in small ways.

Participating Artists Cho Sinhyun, Hyun Sanghwa, Hwang Donghwan, Lee Yaesol

Part 4 친밀한 + 시간을 마시다

일-적 생활이 희석되면서 오히려 구상하는 공간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중 지혜의 정교함 하등하게 보여준다. 무엇이든 새 차와 함께 즐기려고 할수록, 이윤과 함께 가는 것이 무의미한 때가 많고, 차, 차, 차의 정교함 일종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Because social distancing has become the norm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and being "back at home" has become the most everyday thing, the home café where we can enjoy hobbies and entertainment, one of the many cultural aspects of the space of a house, is becoming a more common thing. In a way, it is a way to enjoy the company of people, who generally want to spend leisurely time in a socially safe, company designed space, coffee cups, and wine glasses to be used as containers of beverage, and food will help the relaxed enjoy business to naturally bring in real work.

이예솔 Lee Yaesol

아르누보 양식을 응용한 반복된 패턴과 결정유 특유의 특징을 결합해 빈티지적 감각을 높이고, 유리의 투명성과 슬립캐스팅 기법을 이용한 도자기의 불투명성이 조화를 이뤄 물성의 하모니를 느낄 수 있다.

By combining a repeated pattern inspired by art nouveau style and characteristics of crystalline glaze, Lee Yaesol makes her works look much more vintage-like. The harmonization of the transparency of glass and non-transparency of ceramics enables the viewers to feel the harmony of the properties of matter.



Antique Soup Bowl 13x13x7.8



Antique Soup Bowl 13x13x7.8, Antique ceramic wine glass 7.8x7.8x23

조신현 Cho Sin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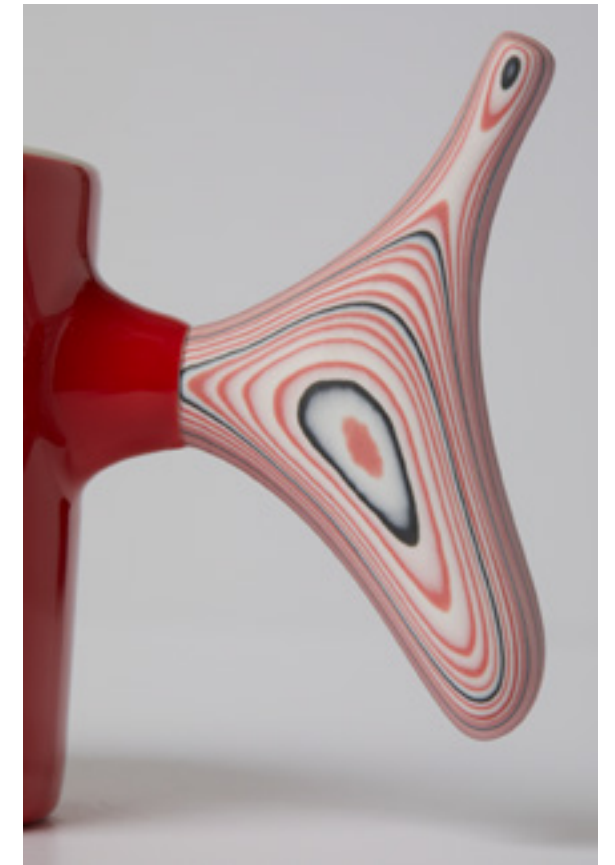
서로 다른 색판들을 겹쳐 선을 이루고 그 선들로 인한 면에 조각을 함으로써 선들이 변화하고 서서히 하나의 조형물로 드러난다. 선의 기본을 흙을 한겹 한겹 쌓아 작은 덩어리를 만들고 장시간의 건조와 번조를 통해 조각하여 단순한 형태에 실용적 디자인을 가미한다. 손잡이와 커피 잔의 굽, 뚜껑의 포인트 되는 부분에 색색의 선의 흐름을 담아 특색을 보여준다.



Layers of different colored slabs form lines and the lines create a plane. By carving the plane, Cho Sinhyun changes the lines to gradually reveal a sculpture. He makes a small mass by laying down clay slabs one by one, and the mass assumes a simple form. He then gives this simple shape practical design when it is drying and being fired over long hours. The handle and foot of each coffee cup and the eye-catching part on the lid reveal the flow of colorful lines.



전시전경



선의흐름-자연(머그) Nature (Mug), 16x9.5x9



자연 Nature(Tea Cup), 16x16x8.5

현상화 Hyun Sanghwa

작은 공방을 시작으로 전통을 이어 성장한 대기업의 브랜드, 클래식 로고를 부각시켜 인더스트리얼 감성을 마시는 도구에 담은 작품이다. 금속 느낌의 빈티지한 텍스처 표면과 조화를 이루는 철제 손잡이가 특징적이다.



The brands or classical logos of large companies, which started with a small studio that took inspiration from tradition, are made to be stand out. By doing so, Hyun Sanghwa embodies industrial sentiment into drinking utensils. Vintage-like surface textures that feel like iron or metal and a handle made of steel that is in harmony with body are characteristic of her works.



커피 드리퍼와 컵 세트 Coffee Dripper & Cup Set



드리퍼 Dripper1, 11x13x8.5



레트로 컵시리즈 Retro Cup Series, 11x7.5x9

황동환 Hwang Donghwan

커브 시리즈는 잔잔한 호수 위에 물방울이 떨어져 생기는 파동과 튀어 오르는 모습을 모티브로 하여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로 변형해 만든다.



The motifs of Hwang Donghwan's Curve Series are undulation (motion of waves) and bouncing when a drop of water falls on a quiet lake, which are transformed into a wide variety of geometrical forms.



커브시리즈 Curve Series



커브시리즈 Curve Series, 12x10



화형접시 시리즈 Blooming Plate Series, 14.5x6

Section 5 · 공유의 + 여행을 그리다

우리의 공예가 생활 속에 널리 이롭게 쓰이길 바라며 공예문화를 가꿔나가는 공예 장생호(대표 정현주)와의 협업 전시공간입니다. 제한된 영역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과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여행을 그리며, 자연 속에 어우러진 아름다운 빛과 형태의 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게 이릅니다.

협업기획 정현주_공예 장생호 대표
참여작가 박은미, 이창화, 오성기

Section 5 · Sharing + Dreaming Travelling

This space is created in collaboration with Crafts Jangsaengho (CEO: Jeong Hyeonju), a company that promotes crafts culture in hopes that crafts will one day soon be widely used in everyday living in good ways. Dreaming of again travelling freely with free bodies and spirits, this part leads the visitors to appreciate ceramics in beautiful colors and shapes in harmony with nature.

Collaboration Jung Hyeonju_ Crafts Jangsaengho
Participating Artists Lee Changhwa, Park Eunmi, Oh Sunggi



박은미 Park Eunmi

우리의 그릇을 찾아 물레작업의 제작과정 속에 정제된 선을 지닌 기물을 만든다.

하얀 백자와 푸른 색 청자빛 아래 높고 낮은, 넓고 좁은 기(器)형태의 어우러짐을 볼 수 있다. 작가의 마음 흐름에 따라 기물에 선을 그으면 비로소 형태 속에 어우러진 선이 더욱 단단한 모습을 드러낸다.

In search of the essence of Korean vessels, Park Eunmi makes shapes with refined lines on the wheel. Put together, vessels of pure white porcelain and greenish celadon, tall and high, wide and narrow, create a certain harmony. Once lines are drawn on the vessel following the flow of her consciousness, the lines reveal a feeling of even greater solidity as they create harmony with the shape of the vessel.



화병 Vase



기 Vessel, 29x18.5, 25x15.5



기 Vessel, 28x20

이창화 Lee Changhwa

물레와 판 성형작업으로 접시의 굽을 높게 만들었으며, 뒷면에 조형적 감각을 더해 쓰임과 형태의 다양성, 접시의 입체감을 살려 무게감을 더한다. 기물에 색화장토를 덧바르고 조합하여 색채가 주는 경쾌함과 조형적 변화가 만든 이와 사용자 모두에게 유희에 빠지게 한다.



Lee Changhwa produced a high-footed dish by wheel-throwing and slab building. The top is decorated with a sculptured motif to give diversity to the purpose and form of the dish, while also making the dish look much more three-dimensional and significant. By reapplying colored slips to the vessel and mixing colors, Lee creates a cheerfulness coming from the colors and sculptural change, inducing both the maker and the user to indulge in joyful play.



오브제주전자 Object Teapot, 15.5x14.5x15



굽높은 접시 시리즈 Dish Series

오성기 Oh Sunggi

도자기 그릇에 옷을 수차례 발라 그릇에는 자연스러운 표면의 질감과 색감이 살아있다.

깊고 검은 흙색과 짙고 옅은 갈색 빛이 부드러운 선의 그릇에 온기를 더 하고, 축적된 시간과 수공이 고스란히 담겨 그릇의 깊이와 무게감을 지닌다.

The surfaces of ceramic vessels are lacquered over and over again to make their texture and color look natural and alive. Deep, black clay color and light brown color bring warmth to gently curved vessels. Time and craftsmanship accumulated over time are contained in the vessels as they are to represent their depth and weight.



브라운, 검댕이 시리즈 Brown&Black Series



검댕이시리즈_화병 Black Series_Vase, 12.5x26



검댕이시리즈_평접시 Black Series_Dish, L31x31x25

Section 6 . 10cm + 공간을 그리다

식생활 중 식사의 품위와 위생을 생각하는 작지만 포인트 되는 존재, 테이블의 10cm 공간을 수저받침으로 꾸며봅니다. 공예는 작든 크든 크기와 상관없이 그 안에 자기만의 세계를 펼쳐내며 완성도를 이끌어냅니다. 수저받침과 어울리는 금속, 나무젓가락 외 커트러리를 한눈에 살펴보며 공예 생활의 실천이 이뤄지는 공간을 그립니다.

참여작가 본 전시참여 도예작가의 손경환, 이용기, 정재홍, 정산

Section 6 . 10cm + Rendering Space

A 10cm square space of a table is decorated with a spoon rest out of desire for elegance and hygiene in dining. This tiny space makes the point of table setting. Regardless of size, large or small, perfectly made crafts unfold their own world in it. Metalwork and wooden chopsticks suited for spoon rests, and cutlery are shown together, dreaming of a space where crafts are used everyday living.

Participating Artists Lee yonggi, Son Gyeonghwan, Jung Jaehong, Jung San



손경환 Son Gyeonghwan

한국의 소반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구조와 비례, 현대적인 쓰임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좌식 생활에서 사용하는 소반과 함께 사이드테이블 용도의 높은 소반과 식탁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소반 등 변화된 삶에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구조와 밝은 색상의 현대적 감성이 담긴 디자인으로 소반의 새로운 확장을 보여준다.

The traditional Korean dining table called soban is reinterpreted to show a new structure and proportion, and modern usage. Soban used in the floor-sitting lifestyle, tall soban used as a side table, and low soban to be placed on a dining table are presented to allow soban to serve diverse purposes in modern living. Designed in light colors and new structures with a view to embracing modern sensitivity, Son's works show new possibilities of soban.



브로손 소원반(대) Broson Wish small portable dining table



미니소반-칼라 Mini Color Soban



소원테이블 Wish Table

정재홍 Jung Jaehong

민감하면서도 견고한 금속이자 가까이 할수록 이로운 재료인 유기를 손으로 두드려 자연스런 형태를 만들고 산뜻한 색감의 옷칠로 채색하여 현대 식생활문화를 반영한다.

Jung Jaehong hammers brass, sensitive and yet solid metal which is known to be more beneficial when kept closer, by hand to produce natural shapes and then coats his works with bright colored lacquer paint that reflects the food culture of modern society.



유기나이프 Yugi Knife, 20.2x2.4x2



유기옷칠수저 Yugi Lacquer Spoon Rest



방짜유기접시 Yugi Dish

정산 Jung San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다양한 현대적 쓰임을 가지는 공예품을 제작한다.
소반이나 기와의 처마선 등 한국적인 미감을 모티브로 유려한 선의 표현에 집중하여, 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은과 황동,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품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은땀과 용접을 활용하여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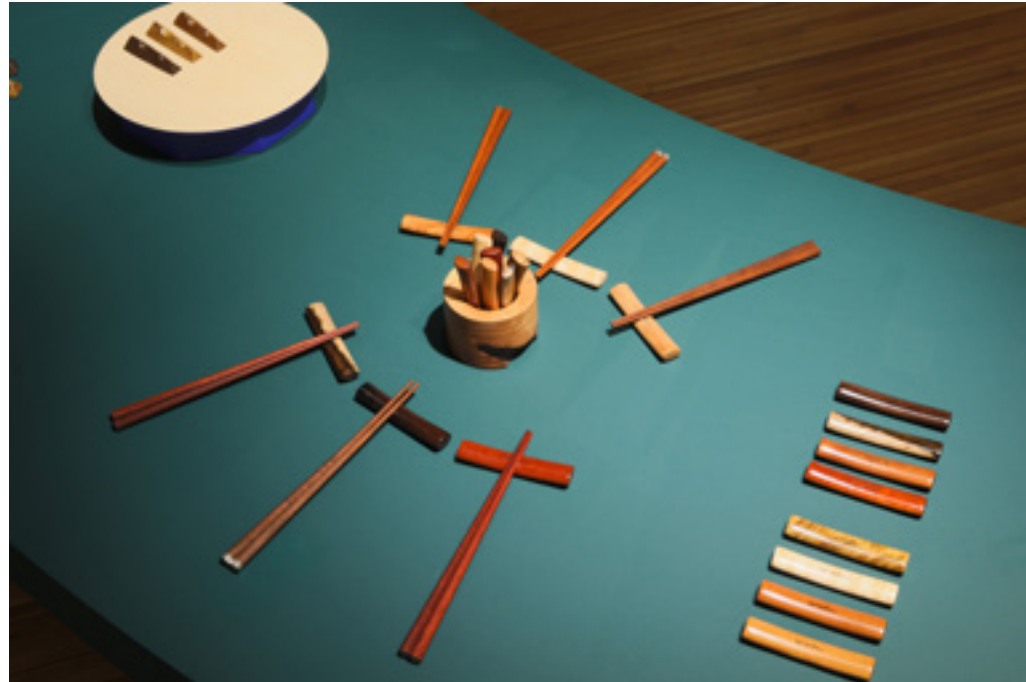
Jung San produces handicrafts for a variety of uses in modern living with traditional Korean materials. Using Korean beauty from such types of pieces as soban (dining table) and the lines of the eaves of a traditional Korean house as motifs for his work, Jung expresses the beauty of lines with focus on elegantly flowing lines. He uses diverse materials including silver, brass, and stainless steel depending on the item. His work involves silver soldering and welding.



디저트스푼과 포크 Dessert Spoon&Fork 수저받침(좌우) 김경수, 이예솔



디저트 스푼 포크 버터ナイ프 Dessert Spoon&Fork&Butter Knife



이용기 Lee Yonggi 수저받침 수저받침꽃이 wood a Spoon rest, 10x1x2



최민록 Choi Minrok 흑도(내화갑)기와집 Black Pottery(saggar) House, 6.5x3x2.7



손경환 Son Gyeonghwan 브로손 마이소반 Broson My Soban, 27x20



백소율 Baek Soyul 마블링 수저받침 Marbling a Spoon rest, 9.1x2x1.6



황동환 Hwang Donghwan 부채 수저받침 Folding Fan Chopsticks Rest, 7x5x1



하민지 Ha Minji 손수저받침 Hand Cutlery Rest, 10.5x5x1



김소민·신경옥 Kim Somin · Shin Kyunguk 국화수저받침 Chrysanthemum a spoon rest, 7.5x7.5x0.5



강현경·유천옥 Kang Hyunkyung · Yoo Cheonuk 풀잎수저받침 Leaf Cutlery Rest, 11x2.2x2.2

전시협력.

Exhibition Cooperation

조명의 名家 bc LIGHTING
sunlux outlux

태양의 빛을 뜻하는 비씨조명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빛을 창출하여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담겨있습니다. 비씨조명은 꾸준히 신제품 개발과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실용적인 조명기구 생산으로 현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국내 최대 유일한 조명전시장을 설립하여 조명의 역사와 다양한 생산품을 한 눈에 둘러 볼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낯설고 어두운 변화의 기점 속에서 개인의 삶마다 안정된 일상을 유지하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작고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조명입니다. 공간에 따라 확장 될 수 있는 본 조명과 2전시실 '사적인 + 공간을 거닐다' 섹션의 인테리어 조명은 비씨조명의 전시협력 아래 이뤄졌습니다.

This lighting embodies wishes for safe, secure everyday living for every citizen during the pandemic, a time of unfamiliar and dark changes, small and new changes, and hopes for our future. This lighting that can be expanded as necessary for the space and ,interior lighting of the Gallery presenting the 2ndsection, Private+Promenade, are installed in association with bc Lighting.

작가약력.

■강현경 · 유천옥 Kang Hyunkyung · Yoo Cheonuk

주요경력

2009 ‘문화를 나누다, the siuter’, 서울 구기동
 2008 한일교류 ‘友’전, 포네티브, 파주 헤이리
 2007 ‘이야기 숲’전, 교갤러리, 일본 도쿄

수상경력

제38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전 특선
 제3회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자부문 동상

학력

2004 국민대학교 도예학과 대학원 석사

■김경수 Kim Kyungsu

주요경력

2020 노영희의 그릇 개인전, 삼성동, 한국
 2019 메종오브제, 파리 노르 빌팡트, 프랑스
 2018 컬렉트, 사치갤러리, 영국
 2016 한식문화특별전 ‘여름나기~맛 멋 심’,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2015 한국공예전, 파리 장식미술관, 프랑스

수상경력

2020 50회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 동상, 경기도
 2018 이천트렌드공모전, 은상, 이천
 2015 Merit award, SHENZHEN DESIGN AWARD, 중국
 2011 서울현대도예전, 특선, 서울
 2010 광주백자공모전, 특선, 경기광주

학력

2013 국민대학교 도예학과 대학원 석사

■김소민 · 신경옥 Kim Somin · Shin Kyunguk

주요경력

2019 ‘똑똑! 새해보화’ 초청전, 슈페리어갤러리, 서울
 2019 ‘사업화 : 흔하거나 흔하지 않는 이야기’ 신경옥 개인전,
 갤러리 라온, 서울
 2017 ‘한국생활도자100인 릴레이’전, 여주세계생활도자관, 여주
 2017 ‘대한민국 우수공예상품’ 전, 베버리힐즈 KSOHO, 미국

수상경력

2020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장려상
 2019 경기 테이블웨어 공모전, 특별상
 2017~18 대한민국 ‘우수문화상품’ 선정
 2015 국제다구디자인공모전,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15 대한민국 ‘우수문화상품’ 선정
 2014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금상
 2014 행주공예디자인, 최우수상
 2013 서울 공예상, 은상
 2013 ‘KDB 전통공예문화산업대전’, 은상

학력

2015 국민대 디자인대학원, 세라믹디자인 석사
 2011 상명대학교 세라믹디자인 학사

■김종훈 Kim Jonghoon

주요약력

2020 춘추IV, 황중통리: 김종훈 도자, 학교재, 서울
 2019 차사발속에 춤추는 삶, 노영희의 그릇, 서울
 2019 일차일반, 라오구 스튜디오, 베이징
 2018 나의 정호다완, 갤러리 조유사, 나라, 일본
 2018 류광이재, 라오구 스튜디오, 베이징 외 개인전12회 및
 단체전48회 다수

학력

1998 단국대학교 도예학과 학사

Artist's Biography

■나용환 Na Yonghwan

주요약력 및 수상경력

2019 우수문화상품지정 ‘화금모란문재유다기’,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제7회 대한민국분청공모전, 동상
 2015 제6회 대한민국분청공모전, 동상
 우수문화상품지정 ‘백금모란문사각등잔’, 문화체육관광부
 2008 제8회 경기도 우수관광기념품공모전, 금상
 문경전국찾사발공모전, 은상
 2006 제36회 경기도 공예품대전, 대상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중소기업협동조합회장상
 (제2006-1008호)

■박병욱 · 양수열 Park Byeonguk · Yang Suyeol

주요경력

2019 무유장작가마 ‘동행전’, 연갤러리, 제주도
 2019 ‘부역찬장, 살래전’, 단디갤러리 초대전, 서울
 2018 ‘생활미감 生活美感’, 여주세계생활도자관, 경기도
 2011 ‘오름지기전’, 세심제갤러리 초대전, 제주도
 2009 ‘제주옹기전’, 공예갤러리 나눔, 서울

학력

2010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석사

■박은미 Park Eunmi

주요경력

2016 ‘한일도예문화교류회전’, 한국도자재단
 2011 메종&오브제 파리 2011, 프랑스 파리 노르빌르뱅크
 2008 박은미 ‘테이블 셋팅전’, 마담버터플라이
 2007 박은미 ‘그릇전’, 아름다운차박물관

수상경력

제4회 토도에 공모전, 토아트 특별상
 제1회 대한민국 도자공모전, 우수상
 2007 토아테이블웨어공모전, 금상
 2002 목포국제도예공모전, 특별상
 2001 세계도자비엔날레 도자공모전, 입선

학력

1999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도자공예전공 졸업
 1995 경기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졸업

■백소율 Baek Soyul

주요경력

2020 에브리띵 굿즈, 우수 굿즈상, 서울
 2019 아트 슈퍼마켓전, 인사동, 서울
 2019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동상, 서울

학력

2007 고려대학교 중문과 중퇴

■손경환 Son Gyeonghwan

주요경력

2019 노들섬 개관 기념 전시, 서울

2019 '호텔 마띠유 ART Space & Gallery THE MAS
개관 기념전', 초대

2019 '리빙엔라이프스타일페어' 부스전시, 초대

2019 '아트 마켓&한옥룸페어' 김해한옥체험관 전시, 초대

학력

2002 부산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오성기 Oh Sunggi

주요경력

2020 갤러리미 이달의 작가 전시

2020 공예트렌드페어참가

2019 서울리빙디자인페어참가

수상경력

2021 제51회 경기도공예품대전, 동상

2019 제49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특선

2019 제49회 경기도공예품대전, 동상

2018 제48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특선

2018 제21회 대한민국관광기념품, 장려상

학력

1997 일본 무사시노미술대학 공예공업디자인학과
(도자전공) 대학원 졸업

■이영호 Lee youngho

주요경력

2021 '공예, 시간과 경계를 넘다',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2021 '코발트 블루: 예술을 물들이다', 한국도자재단 광주 특별전,
온라인

2020 '여항공예', 공예 장생호, 서울

2018 '피서, 휴식을 즐기다', 한국문화재단, 서울

2017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한국도자의 정중동', 이탈리아 밀라노

1987 유산요 공방 설립

수상 경력

2007 세계도자비엔날레국제공모전, 동상, 한국도자재단

2007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대상, 한국도자재단

학력

198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졸업

■이예솔 Lee Yaesol

주요경력

2021 '한옥에 품은 미술전'

2021 Istanbul international student Bienneial 'something
happened everything changed'

2021 각자도생 '릴레이 개인전'참여, 각자공생 '걷는, 사물' 단체전

2020 제 12회 평택도예가회 그룹전

2020 'March, international women's day' 전시

수상경력

제 23회 관악현대미술대전, 특선

제 24회 관악현대미술대전, 특선

제 21회 익산한국공예대전, 입선

학력

2021 경희대학교 도예학과 석사 과정

2020 경희대학교 도예학과 학부

■이용기 Lee Yonggi

주요경력

개인전 17회 (1997~ 현재, Tokyo, Nagoya, Fukuoka in Japan,
부산, 서울, 양산, 통영등)

아트페어 및 개인 부스전 9회 및 단체전 400여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초대작가전' (2005년~)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2017년~, 합천, 경남)

2016 일본 이타미 시립 '공예미술관 초대전', Itami, Japan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문화상품관, Milano, Italy

2015 CRAFT RECIPE전,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초대전

2014 구로시마 예술제, Kuroshima, Japan

수상경력

2020 백년소공인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2015 우수숙련기술자 (목공예), 고용노동부

2013 제1회 부산공예명장선정 (목공예), 부산광역시

2011 제14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특선, 문화체육관광부

학력

1992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공예학과 졸업

1996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예교육전공 졸업

1997 일본 큐슈산업대학교 예술학부 디자인과 연구과정 수료

2008 동아대학교 조형디자인학과 공예디자인 박사

■이창화 Lee Changhwa

주요경력

2021 제11회 개인전, 노영희그릇, 서울외 다수

2019 '도시도인전', 아트링크 갤러리, 서울

2011 이강호, 이은범, 이창화 3인전, 송하우스 갤러리, 부산

2010 이도갤러리 개관전 '그릇2011-아름다운 우리그릇',
이도갤러리, 서울

2009 '도자,색을 품다', 이천세계도자센터, 이천

수상경력

2006 제2회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공모전, 특선

2004 제1회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공모전, 입선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학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수료

■인현식 In Hyeonsik

주요경력

2019 갤러리 팔조 '온기/溫器전', 서울 청담동

2019 China Jingdezhen International Ceramic Fair,
China Jingdezhen

2018 갤러리민_인현식 차그릇전, 경북 청도

2018 '한국다기육존전', 한국문화정품관

2018 경기 도자재단 한국생활도자전시회, 홍릉, 한국문화원

2017 생활도자특별전 '그릇을 말하다', 영암도기박물관

2017 Disegnare un inverno viola, Gallery ATTUARS

수상경력

2016~2020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K-CRAFT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2019 제49회 경기도 공예품대전, 은상

2018 제48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2018 제48회 경기도 공예품대전, 금상

2013 제2회 KDB전통공예 산업대전, 대상

2013 제43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국무총리상

학력

2005 상명대학교 대학원 세라믹디자인 석사

2003 상명대학교 세라믹디자인 학사

■정 산 Jung San

주요경력

2021 茶多黨'다다당', 갤러리 다운재, 울산

2021 事物變奏'사물변주', 신라호텔 휴크래프트, 서울

2021 S/S Living Week Baton, 던컨템포, 서울

2021 휘게 Hygge, 폴스킨터 아트스페이스, 서울

수상경력

2019 KCDF 공예디자인 상품개발사업 선정, 서울

2016 예술해커톤:전통편, 우수상, 서울

2016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입상

2016 전주 전통공예전국대전, 입선, 전주

2015 충청남도 관광기념품공모전, 동상, 충남

학력

20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사

■정재홍 Jung Jaehong

주요경력

2021 구천면로 공방 개소기념 초대전, 구천면로 공방갤러리, 서울
2018 정재홍 담금 기획초대전, 아원갤러리, 서울삼청동
2013 제8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입선
2013 정재홍 금속공예 기획초대전, 충주공예전시관, 충주
2013 <Stroll> 정재홍 금속공예기획초대전, 서울아트센터
공평갤러리, 서울

수상경력

2013 제8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입선
2009 한국공예대전, 입선, 익산 송리문화예술회관
2009 경기문화재단 선정작가
2003 무사시노 미술대학 우수작품전, 우수상, 동경 무사시노
미술대학 전시장
2002 제5회 ASAHI유학생미술전, 입상, 동경 스미다구
리버사이드홀 갤러리

학력

2008-현 건국대학교 금속공예디자인 전공 겸임교수
2018-21 청주대학교 대학생 대상 공예 디자인 교육 지도교수
2003-07 아오야마 금속공예 연구실
동경 무사시노 미술대학 조형연구과 연구원
2003 동경 무사시노 미술대학 대학원 공예공업디자인과
금속공예전공 조형석사
1997 건국대학교 공예미술학과 금속공예전공 조형학사

■조신현 Cho Sinhyun

주요경력

2021 2021한국공예원으로 '정예작가10인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2021 한국현대도예가회, KCDF갤러리, 서울
2021 '흙으로 피운 꽃', 용산공예관, 서울
2020 '현상전',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2020 '한국현대공예올림전', 예깊미술관, 군산

수상경력

2019 제1회 세계호예(壺藝)대회, 우수상, 중국
2017 제47회 경기도공예품대전, 대상, 경기도
2013 제48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경기도
2011 2011 대한민국현대도예공모전, 대상, 인천
2009/2007 청주국제공예공모전, 우수상, 청주

학력

2014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예학과 도자조형디자인 박사
1999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예학과 석사

■최민록 Choi Minrok

주요경력

2021 '다유(茶裕) 차를 즐기는 도예가들의 10만의 외출',
경기생활도자미술관, 여주
2009 '담다'전, 지노공간, 서울
2009 '나무와 흙'전, 갤러리폼, 서울
2006 봄의 향기 '춘향'전, 경인미술관, 서울
2003 'Choice'전, 갤러리블루, 서울

수상경력

2007 문경새재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 입선, 한국전통찻사발
촉제추진위원회, 문경
2007 제8회 사발공모전, 입선, 한국사발학회, 서울
2002 익산공예대전, 입선, 전북공예가협회, 익산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클레이올림픽 조형대회, 대상,
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 이천
2001 제 2회 사발공모전 특선, 왕실도예가협회, 서울

학력

2003 단국대학교 도예학과 학사

■하민지 Ha Minji

주요경력

2021 그룹전 'BLESS YOU GLASS YOU' 참여, 스몰 글라스 주최
2020 공예 트렌드 페어 브랜드관 참가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참가
2020 양구 '백토 천 개의 빛이 되다' 프로젝트 참여
2018 공예 주간 문화역 서울 마켓 유랑 참가

학력

2001 이화여자대학교 도자예술전공 학사

■현상화 Hyun Sanghwa

주요경력

2021 tvn 신년이미지 광고
2021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이미지광고
2021 디자인아트페어, 예술의전당, 서울
2015-2017 Maison & objet paris, 파리, 프랑스

수상경력

2019 Maison & objet paris 올해의 영감을 준 디자인 선정,
파리, 프랑스
2007 이천트렌드페어, 은상

학력

2006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자공예학과 석사
2003 대구예술대학교 도자공예과 졸업

■황동환 Hwang Donghwan

주요경력

2019 '전국대한민국 대학생 우수도예작품 초청전',
영암도기박물관, 영암
2018 YCK (Young Creative Korea), 아라 아트센터, 서울

학력

2018 계명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학사, 대구

회복 - 공간을 그린다

2021.10.1-2022.1.28. (연장전시)

경기생활도자미술관

온라인플랫폼 www.kicb.or.kr

발행인 최 연

발행처 한국도자재단

주최 경기도

주관 한국도자재단, 경기생활도자미술관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연

비엔날레 추진단장 장동광

경기도자박물관 관장 장기훈

전시교류팀장 최영무

큐레이터 김지수

전시지원 원정림, 안은화, 장수빈, 박민지, 한보미

온라인플랫폼 박민혜, 김지희

비엔날레전시교류팀 최리지, 한정운, 이소연, 한민우

신주영, 황선규, 이인욱, 노수진

경기도자온라인페어 정엄식

전시디자인시공 디자인랩그레이프

도록 디자인 선데이

사진촬영 한정수

번역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 한국도자재단 본 도록의 모든 권리는 한국도자재단에 있으며
본 재단의 서면 동의 없이는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covery - Draw a Space

Oct. 1. 2021 ~ Jan. 28. 2022

Gyeonggi Museum of Ceramic Design

Online Platform(www.kicb.or.kr)

Publisher Yun CHOI

Publish Korea Ceramic Foundation(KOCEF)

Organizer Gyeonggi-do Province

Host Korea Ceramic Foundation(KOCEF)

President of the KOCEF Yun CHOI

General Director Dong Kwang CHANG

Director, Gyeonggi Ceramic Museum Kihoon CHANG

Leader, Exhibition Team Youngmoo CHOI

Curated by Jisu KIM

Supported by Jeongrim WON, Eunhwa AN, Subin JANG,

Minji PARK, Bomi HAN

Online Platform Minhye PARK, Jihee KIM

Exhibition Team Leeji CHOI, Joungoun HAN, Soyeon LEE,

Minwoo HAN, Juyoung SHIN,

Sunkyu HWANG, Inwook LEE, Sujin RHO

G-Ceramic Online Fair Umsik 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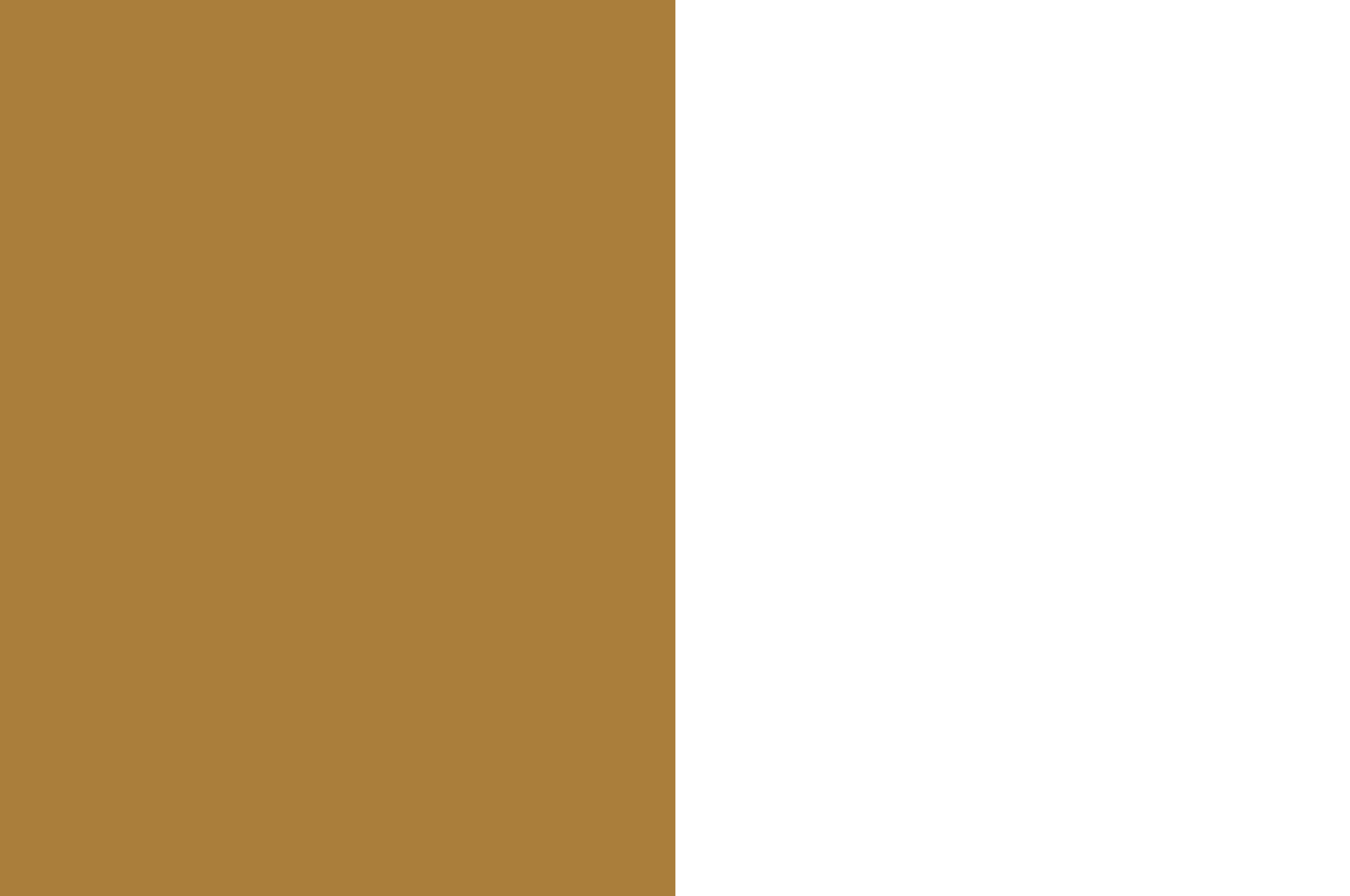
Space Designed by DESIGNLAB GRAPE

Graphic & Catalogue Designed by Sunday

Photo Jeongsoo HAN

Translat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Copyright by Korea Ceramic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or by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except
in the context of reviews.



회복 -
공간을 그리다

Recovery -
Draw a Space



경기생활도자미술관
Gyeonggi Museum of
Ceramic Design

